

KMI 국제물류위클리

2016년 1월 6일 · 제 339호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김형태 선임연구위원

Contents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1. 칭다오, 40억 달러 규모 복합냉장창고로 수산물 허브 구축
2. 인도, 자와할랄네루항 연결 대규모 드라이 포트 건설 추진
3. 폴란드 그단스크, 초대형 항만 건설 입찰 예정
4. 영국 로얄메일그룹, 넷디스패치사 인수합병 발표

| 물류시장동향 |

1. 일본 Kirin사, 양쯔강 물류센터 인수
2. 카타르항공, 미국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에 화물운송 개시

| 공지사항 |

1.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물류정책 · 사업동향

칭다오, 40억 달러 규모 복합냉장창고로 수산물 허브 구축

- 칭다오 Dongjiakou항에 동북아 최대 복합냉장창고 건설 프로젝트가 승인되어 칭다오시는 수산물 수입의 국제 교역센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CAPPMA(China Aquatic Products Processing and Marketing Alliance)의 발표에 따르면, 총 투자금액은 260억 위안(40억달러) 이상이며 초기 투자금액은 101억7천만 위안(15억 달러)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CAPPMA는 해당 항만은 3천톤에서 8천톤(metric ton)급 어선을 수용할 수 있고, 총 면적은 12.26 km²가 될 것이라 언급함
- 복합냉장창고 건물은 몇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는 데 수산물의 국제 교역센터, 콜드체인 물류 설비, 해양 문화 센터들이 포함될 예정임
 - 이 시설은 면적 450,000 m²의 냉장창고와 연간 10만 톤을 처리하는 가공 설비가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항만, 부두, 해양 선박을 위한 서비스 영역, 어업인을 위한 교육 센터, 오피스 건물, 물류 구역, 방어벽(bulwark)¹⁾과 묘박지(anchorage)²⁾도 포함하고 있음
- 해양 선박을 위한 서비스 영역은 입출항 선박들과 기타 지원 선박이 유지되고 수리될 수 있고 새로운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장소임
 - 계획상으로는 연간 15척의 어선과 지원 선박을 건조하고, 350척을 수리하며, 12,000톤의 철강을 생산할 예정임
 - 이 프로젝트로 인하여 수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 교역 센터를 건설한 이후에는 무선 전자 경매 시스템을 설치해서 자금 확인, 상품 정보 기록 및 경매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실현할 것임
 - 연간 교역 규모는 3백만 톤으로 예상되며 금액으로 540억 위안(83억 달러)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냉장창고의 수용능력은 60만 톤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임
- 이 냉장창고는 10만톤에서 15만톤의 극저온 창고시설, 어선 및 냉장창고의 끊임없는 연결로 수산물 보관에 커다란 이점이 있음
- 이 프로젝트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건설이 빨리 진행되어 2년 내에 창고 내 몇 개의 설비가 사용될 예정임

1) 상갑판 등에 파도가 넘쳐 들어오는 것을 막고 통행의 안전을 위해 현측에 설치된 철 울타리
 2) 선박의 정박에 적합한 항 내의 넓은 수면



- 예를 들면, 프로젝트 팀은 칭다오시 후지아산(Hujiashan)구에 대한 조사와 매핑작업을 완료한 상태로, 몇 개의 항만과 방어벽 설계, 도로의 기초공사를 완료했음
- 또한 이 프로젝트의 개발에 중요한 관리 및 건설과 관련된 상세 계획의 초안을 마련했음
- 이 시점에는 1백만톤의 수산물이 이곳에서 하역될 예정이며, 교역금액은 150억 위안(23억 달러)이 예상되며, 23억 위안(3억6천만 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 : www.undercurrentnews.com, 2015.12.28.; www.264000.cn/ycxgzs/78.html 2015.12.20

이언경 전문연구원
051-797-4682, eklee@kmi.re.kr



인도, 자와할랄네루항 연결 대규모 드라이 포트 건설 추진

- 인도 정부가 자국 최대의 컨테이너 항만인 마하라슈트라 주의 자와할랄네루항과 이 항만의 내륙 배후 산업도시 아우랑가바드(Aurangabad)를 연결해줄 드라이 포트를 건설기로 함
 - 자와할랄네루항은 인도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도를 대표할 수 있는 초대형 항만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개발되기 시작해 현재 인도 최대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자리잡았으며 인도 주요 항만들의 전체 컨테이너 처리량의 56%를 처리하고 있음³⁾
 - * 자와할랄 네루 항은 인도 동해안의 첸나이 항구와 함께 인도의 동·서해안을 대표할 수 있는 허브 항만으로 중점 육성되어 왔음
 - 마하라슈트라 주의 중앙부에 위치한 내륙 도시 아우랑가바드(인구 약 1백만 명)는 인도 서해안 자와할랄네루항으로부터 411km 떨어져 있으며, 인도 정부가 최근 건설기로 한 드라이 포트 위치는 아우랑가바드 외곽의 잘나(Jalna)라는 곳임
 - 공사 주체는 자와할랄네루항의 운영책임을 맡고 있는 자와할랄네루항트러스트(JNPT)로 새로 건설될 드라이 포트의 부지 면적은 185ha(약 56만 평)으로서 여의도 면적(약 88만 평)의 2/3를 상회하는 규모임
- 잘나 드라이 포트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의 대규모 산업화 계획 ‘인도 제조’(Make in India) 구상의 5대 산업회랑 일부와 연계되어 있으며, 자와할랄네루항과 철도로 직접 연결되어 마하라슈트라 주의 열악한 내륙물류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인도 제조’ 구상 하의 5대 산업회랑이란, ‘델리-मुंबई 산업회랑’ ‘방갈로르-मुंबई 경제회랑’ ‘첸나이-방갈로르 산업회랑’ ‘비자그-첸나이 산업회랑’ ‘암리트사르-콜카타 산업회랑’을 지칭하며, 아우랑가바드는 ‘델리-मुंबई 산업회랑’에 속한 마하라슈트라 주의 핵심 교통 거점 가운데 하나임
 - 인도는 잘나 드라이포트에 컨테이너 야드 및 상하역 시설, 세관 관련 시설을 조성해 이 지역 수출입 화물이 별도의 절차없이 자와할랄네루항을 바로 통과할 수 있게 수출입에 따른 제반 업무를 간소화할 계획임
 - 특히 잘나 드라이 포트에는 온도조절 기능을 갖춘 보관창고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 마하라슈트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출을 효율화할 계획임
 - * 또한 잘나 드라이 포트에 인접해 식용유 정제시설을 건설, 이를 드라이 포트를 이용해 수송함으로써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JNPT측은 이밖에도 자와할랄네루항의 허브항만 위상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인도 수도인 뉴델리까지의 고속도로를 현재 2차선에서 향후 4차선으로 확대하고, 인도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도 단계적으로 복선화하는 등 복합운송 능력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인도 시장 진출시 국내 기업들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 : www.lloydlist.com 2015.12.30

박성준 전문연구원
051-797-4774, sjpark@kmi.re.kr

3) www.jnport.gov.in 참조.



폴란드 그단스크, 초대형 항만 건설 입찰 예정

- 폴란드의 그단스크(Gdansk) 항만 당국은 새로운 심해 항만 건설을 위해 2016년 말에 입찰을 진행할 예정임
 - 이 입찰은 컨테이너 및 일반 화물의 환적을 위한 새로운 심해 항만을 건설함과 동시에 그단스크 항만을 초대형 항만으로 전환하여 세계 최대, 초대형 선박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그단스크 항만은 발틱해 남부 연안의 중앙에 위치한 주요 국제 환적 허브항으로서 이번 건설을 통해 발틱해 허브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자 함



그단스크 항만 전경

자료 : <http://www.newsmaritime.com>

자료 : <http://theloadstar.co.uk>

- 이 항만 입찰 건은 이미 중국 입찰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항만 건설을 통해 그단스크는 폴란드뿐만이 아닌 모든 동유럽국가의 물류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국인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현재 폴란드 정부는 항만 확장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자금의 일부는 도로 및 철도 네트워크를 향상하는데 사용되고 있음
 - 폴란드는 2004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 지난 15년 동안 총연장 2,400km에 달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했음
-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650m의 새로운 부두가 건설될 예정이며, 갠트리 크레인 5대 구입을 통해 18,000TEU 급 컨테이너선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 <https://www.porttechnology.org>, 2015.12.23 / <http://theloadstar.co.uk>, 2015.12.21.

신수용 전문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r



영국 로얄메일그룹, 넷디스패치사 인수합병 발표

- 영국 로얄메일그룹(Royal Mail group, 영국 체신공사)은 영국의 넷디스패치(NetDespatch)사를 성공적으로 인수함
 - 로얄메일그룹은 넷디스패치사를 “운송, 택배 배송 정보 관리와 우편 및 소포의 라벨링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 선두적인 기업”이라 평하며 본 인수합병은 향후 자사의 IT 관련 역량을 대폭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본 인수합병은 로얄메일그룹의 전략적 목표 중 하나인 “점진적인 기술 발전과 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물품의 배송 및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상거래 솔루션의 제공”을 성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 : www.royalmailgroup.com



자료 : www.netdespatch.com

- 로얄메일그룹은 넷디스패치사에 대한 인수합병으로 향후 자사가 기존에 행한 다양한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넷디스패치사는 로얄메일그룹의 중소 소매업 고객에게 라벨링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으로 넷디스패치사에 대한 인수합병은 로얄메일그룹이 스토어피더(Storefeeder)사를 '15년 초에 인수합병하며 개설한 서비스인 클릭&드롭(click&drop) 서비스에 라벨링 서비스를 추가하며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더하여, 본 인수합병은 최근 로얄메일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호주의 마켓엔진(Market Engine)사⁴⁾에 대한 투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힘

자료 : www.royalmailgroup.com, 2015.12.21.

고재성 연구원
051-797-4776, jsko@kmi.re.kr

4) 마켓엔진(Market Engine)사: 마켓엔진사는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및 IT관련 서비스를 기반으로 지역적 및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주고객사에 전자상거래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물류시장동향

일본 Kirin사, 양쯔강 물류센터 인수

- Kirin International Holdings사는 중국 우한 양쯔강 물류센터를 약 16억 달러에 인수함
 - 또한 우한 양쯔강 물류센터에 대해 Energetic Mind사와 약 15억 달러 상당 주식교환 합의를 체결함
- 양쯔강 물류센터는 중국과 중동, 유럽간의 중요한 교역 공간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양쯔강 물류센터는 중국 우한의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접근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한 부분임
 - 양쯔강 물류센터는 항만, 철도 화물 야적장, 창고 및 유통구역, 콜드체인 구역, 상업 공간 등 6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짐
 - Kirin사는 이번 인수 등으로 우한 양쯔강 물류센터는 중국 내 주요 상업 허브가 될 것이며, 계속해서 최첨단 인프라 물류시설을 구축 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자료 : <http://transportinfrastructure.logistics-business-review.com>, 2015.12.22

김은미 연구원

051-797-4778, usea1004@kmi.re.kr

카타르항공, 미국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에 화물운송 개시

- 카타르항공 카고(Qatar Airways Cargo)는 미국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Dallas Fort Worth International Airport)에 신규 화물 노선을 취항할 예정임
 - 2016년 1월 19일부터 시작될 화물 운송은 카타르항공의 보잉 777F 화물기를 투입하여 벨기에 리에주 항발, 달라스 도착으로 주2회 운항될 것임
 - 매달 수출 운송량은 약 400톤, 수입 운송량은 약 300톤으로 증가할 전망임
 - 카타르항공은 이번 화물 노선 취항을 통해 미국 내 13개 목적지에 화물 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추가 여객 및 화물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특히 카타르항공은 댈러스로의 화물운송 개시를 기점으로 국방 · 금융 · 정보기술 · 생명과학 · 반도체 · 통신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 수출입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격적인 시장 진출 전략을 펼칠 전망임

자료 : www.gscintell.com, 2015.12.23.

황윤희 연구원

051-797-4786, hwangyh@kmi.re.kr



중소 · 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는 중소 · 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과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상기업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 중견기업
-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 포함
 - ※ 중소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기업

● 대상사업

- 해외 물류시설(물류단지 · 센터 · 창고, 항만 · 복합물류 터미널 등)의 개발투자운영 사업
- 해외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 · 지사 · 사무소 설립 사업
- 상기 관련 M&A 및 기타 해외 물류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 지원내용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 진출희망 지역 또는 추진하려는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현지 시장정보 및 진출 · 투자 여건 등 기초정보에 대해 단기 컨설팅 지원
- 현지 경제 · 무역 · 인프라 · 물동량 현황, 투자 관련 법 · 제도 등에 관해 기업이 문의 시, KMI가 보유하거나 입수 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문의사항 관련 정보 제공
- 컨설팅 결과물은 문서 형태로 제공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 공동조사(KMI 연구진과 물류기업 임직원이 동반)를 수반한 중기 컨설팅 지원
- 필요시 해외투자 유관기관 및 현지 유관기업 관계자와의 상담 주선
 - ※ 현지 공동조사에 수반되는 출장비 등은 KMI와 해당기업이 각자 부담
- 조사 종료 후 공동조사 보고서 제공



● 지원사업별 신청방법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별첨 1)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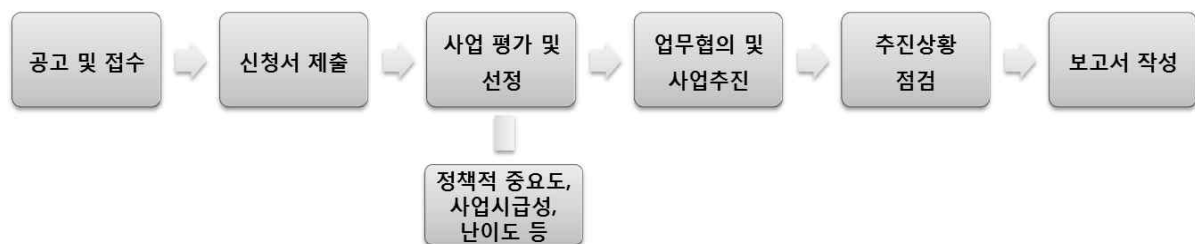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별첨 2)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 ※ 담당자 : 김은우 전문연구원(hisgrace@kmi.re.kr), 손보라 연구원(bora62@kmi.re.kr)

● 신청서 평가 및 기타

- 선정기준 :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시급성·난이도, 정책적 중요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지원
- 선정결과 발표 : 신청서 접수 후 2~3주 이내 개별 통지
- 유의사항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김은우 051-797-4772 / 손보라 051-797-4781)로 문의
 -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사업 추진절차





별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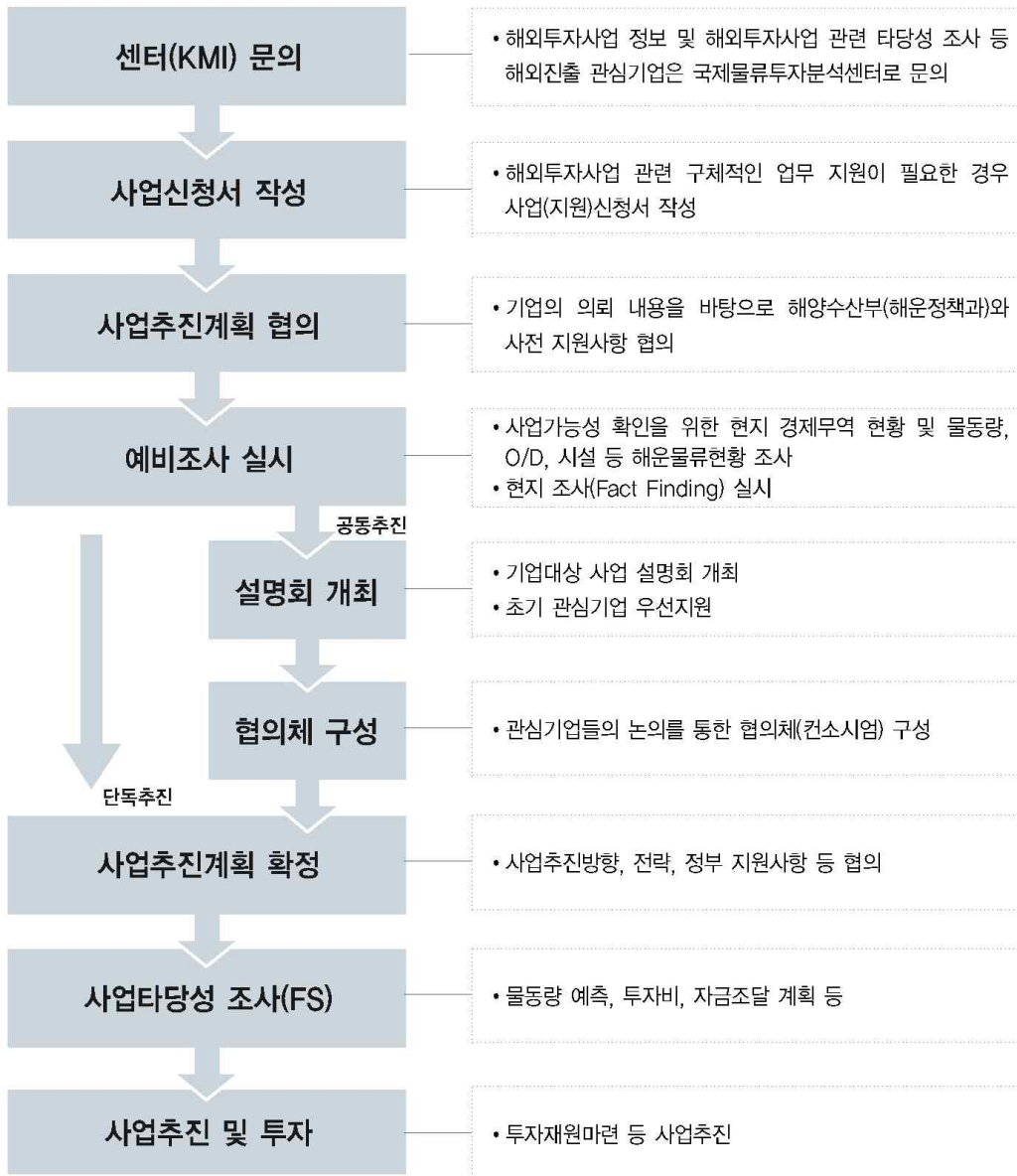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

업체 개요	기업명		업 종	
	대표자		종업원수	
	소재지			
	자본금		매출액 (전년도)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일자	
지원요청 내용	국가/지역			
	관련 사업			
	문의사항			
신청자	부서		Tel	
	직위		Fax	
	성명		E-mail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귀하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